

이용악의 「평남관개시초」 고찰

裴 錫 皓*

국문초록

이용악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그리고 분단시대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다. 그는 고난의 역사와 험악은 민중의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여 이를 시로 형상함으로써 민족문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시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월북 후 1957년 『리용악 시선집』 출간한다. 여기에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기념비적인 평남관개공사의 대역사를 다룬 「평남관개시초」가 들어 있다. 월북 후 이용악은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1953. 7)와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 시기'(1953. 7~1958. 8)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시대의 문예정책과 이념에 복무한다. 당시 시문학은 이러한 격동기의 현실을 다양한 예술적 형식을 통해 담아낸다. 특히 당대의 구체적인 경험 현실을 담아내는 데 서사시가 크게 기여한다. 이후 서사시는 장·단편서사시, 서정서사시, 이야기시, 담시 등의 변모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용악은 서정과 서사적 요소가 균형적으로 결합된 서정서사시인 「평남관개시초」를 통해 '반외세 의식'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이 실천하고자 한 문학적 이념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며 계급주의 민족문학의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이용악, 평남관개시초, 문예정책, 서사시, 서정서사시, 대중적 영웅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체제 협력의 길 |
| II. 1950년대 북한시문학의 전개 추이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 제국주의의 항복과 더불어 얻게 된 해방의 기쁨은 잠시,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정치적 힘의

* 인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6baesh4@hanmail.net

역학 관계에 따라 국토의 분단이라는 새로운 불행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6·25 동란이라는 처참한 동족상잔을 계기로 이념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극단적인 적대국으로 첨예한 대립과 긴장을 장기화시키며 남북분단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현실 속에서 노정된 정치 사회적인 모순이 거듭되는 동안 양쪽의 이념은 더욱 첨예화되었으며 남북한 생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에도 회복되기 어려운 단절의 골을 깊게 파놓았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문예정책은 상호배척의 논리로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념에 따라 문학적 실상을 왜곡하는 뼈아픈 현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북한의 문학을 대함에 있어 이질적이고 독자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민족문학이라는 포괄적 범주 속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 문학은 분단시대 우리 문학의 정신사적 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한 문학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진정한 민족문학사의 받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 단지 남한과 다르다는 이유로 북한문학과 무조건 절연하거나 비판에 머무른다면 문화적 상호이해는 상쇄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문학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학을 극복하고 민족문학의 동질성과 총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용악은 월북 전 일제강점기에 대규모적으로 발생한 국내의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를 민족모순의 핵심으로 명확히 인식하여 자기 시에 정당하게 형상한 시인이다.²⁾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이른바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업적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하다.³⁾ 해방기 이용악은 이념의 흐름과 민족의 통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족전체의 문제와 연관이 깊은 귀향이민에 관심을 보인다. 이용악의 경우 특히 현실에 대한 서사적 형태로의 수용은 남한을 넘어 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연속선상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모든 부정적 군상들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지를 담아 ‘항거의 시’로 표현했다. 그러나 천박한 구호나 생경한 관념적 노출을 가능한 억제함으로써 새로운 선전·선동시의 지평을 열어 보이며 ‘무기로서의 문학’적 실천을 보여 주었다. 해방기 이용악 시는 해방 전 그의 시세계와 맥이 닿아 있으면서 또다른 문학적 변용을 보임으로써 월북 후의 시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북으로 건너간 이용악은 ‘남로당계 숙청사건’의 여파로 “공산주의를 말로만 신봉하고 월북한 문화

1) 김경숙, 『북한의 현대시사』, 태학사, 2004, p.12.

2) 유종호는 이용악의 시가 특정 상황의 자초지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추상의 차원을 넘어서 구체에 뿌리박고 있다는 뜻이고, 생활과 현실이 서정적 밀도와 강도 속에서 구상화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감정 표현 또한 극히 친근한 말씨로 자연스럽게 토로되어 호소력을 지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용악을 “현실주의 시인이 현실주의자이기 전에 시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20세기 전반의 최초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그가 없었다면 당대의 현실주의 시편들은 빈한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6, pp.195~221.

3)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 - 이용악론」(1988), 『서정적 진실과 시의 힘』, 창작과비평사, 2002, p.77.

인”으로 지목돼 반년 이상 ‘집필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예술성과 사상성을 추구, 형상성 높은 시작품을 선보이며, 전후시대와 천리마시대 사이의 시기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작가로 분류된다.⁴⁾ 해방 후 이용악은 북한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특히 농촌과 어촌 현실의 전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이를 적극 시화했다. 그 작품적 결실로 1957년 『리용악 시선집』을 거두었다.⁵⁾ 이 시선집은 북한에서 창작한 시편과 남한에서 쓴 시를 함께 엮어 출간된 것으로 여기에 「평남관개시초」(1956. 8)가 들어 있다.

해방 후 그의 창작을 대표하고 창작적 개성이 잘 드러난 연작시 형태의 「평남관개시초(平南灌漑詩抄)」는 북한문학사에서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1953. 7~1958. 8)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발표한 것으로 “위대한 역사적 전변을 가져온 농촌의 벽찬 현실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시적으로 일반화”한 하나의 문학적 전범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⁶⁾ 이 시초에서 시인은 평범한 생활을 “낙천적 감정으로 부각하며 향토색 짙은 민족적 정서로 기지와 낭만이 있게 노래”하고 있다.⁷⁾

본고는 「평남관개시초」를 중심으로 월북 후 그가 활동했던 ‘1950년대 북한시문학의 전개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격동기 북한시문학사에서 ‘현실반영을 위한 예술적 장르 모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시의 형상화과정을 통해 어떻게 ‘체제 협력의 길’을 걸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1950년대 북한시문학의 전개 추이

문학은 인간의 사회적 삶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그것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과정 역시 고도의 사회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 창작되고 그것이 독자에게 읽혀져 영향을 미치는 문학현상은 인간의 사회적 삶, 다시 말해 정치나 경제 등 사회현상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지닌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활동한 이용악에 있어 이 말은 더욱 유효하리라 본다. 따라서 그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문학 외적조건을 고려하지 않

4) 3차 월북문인에는 이용악, 조영출, 조벽암 등을 들 수 있다. 월북 후 남로당 숙청시 대상에 올라 징계를 받고 다시 복권되어 예술성과 사상성이 조화를 이룬 시인군으로 분류된다. 김정숙, 앞의 책, pp.46~47.

5) 『리용악 시선집』에는 모두 6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제1부 「어선 민청호」라는 표제 아래 휴전 후 쓴 11편이 수록 되어 있고, 제2부 「우라지호 가까운 항구에서」는 해방 전에 발표한 31편의 작품이 담겨져 있다. 「노한 눈들」의 표제를 단 3부에는 해방이후 서울에서 발표한 7편이 실려 있으며, 전쟁 중에 쓴 9편이 제4부 「원췌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5부 「평남관개시초」에는 휴전(1953. 7. 27) 후에 쓴 10편이 담겨 있다. 이 시집은 반외세 의식, 사회주의 의식, 그리고 반봉건 의식을 기본 내용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평남관개시초」는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 문학예술상(1956) 시부문 1등상을 수상하였다.

6)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189.

7) 류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248.

은 채, 그것의 미학적 가치평가나 작품의 내적구조의 연구는 유용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월북 후 이용악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시의 형상화과정 및 그 변모과정을 바르게 이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악은 해방기의 격심한 좌·우익 투쟁에서 진보적 문인대열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검거,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언도(1950. 2. 6)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아마도 김상훈 등과 ‘민전’ 계열에서 선동선전전에 적극 가담한 듯하다.⁸⁾ 이후 북한군의 서울점령(1950. 6. 28)으로 출옥,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현덕, 설정식, 임학수 등과 함께 ‘궁색한 귀향’으로서의 월북을 감행한다. 월북 후 그는 남북 문학단체가 연합을 계기로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 시분과 위원장(1951. 3~1952. 7)으로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 그의 시적경향과 어조도 크게 변화를 보인다.

또한 조선 작가 동맹출판사 단행본 부주필(1956. 11~1957. 12)을 역임 하는 등 꾸준한 활동과 ‘당성’ ‘계급성’ ‘인민성’ 등 대체로 북한의 문예정책에 협력하는 내용의 작품을 적잖이 발표하면서 체제에 적응하게 된다.⁹⁾ 1963년 그는 월북시인 김상훈과 『풍요선집』을 공역·출간했으며, 1971년 2월 15일 지병인 폐병으로 아들이 임종한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¹⁰⁾

이용악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그리고 분단시대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 산 시인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10년, 해방기 5년, 월북 후 20년의 문학활동 기간 동안 격동기의 역사와 민중의 현실을 인식하여 민족문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바, 이 점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 북한시문학의 전개 추이를 고찰함에 있어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1953. 7)와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1953. 7~1958. 8)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¹¹⁾ 이 시기는 이용악이 월북 후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로 북한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예술성이 고조되었던 때이며, 북한문학의 전개에 있어 정치·사회 등 문학외적인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중요한 시기로 북한시문학이 담당했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8) “문화공작대로 갔다가 춘천에서 강릉서 돌팔매를 맞고 돌아온 젊은 시인 상훈도 진식이기도 기운이 좋구나.” 이용악 시 「빗발 속에서」의 구절도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9) 북으로 간 이용악은 북한의 문예정책에 협력한 것으로 보여 진다. 북에서 발표한 그의 시편을 보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중심적인 구성요소인 공산주의적 사상성, 인민성, 계급성, 당성, 전형성 등이 보여 지고 있다. 유종호는 이러한 이용악의 시편을 일종의 ‘체제 송가’, ‘체제 응원가’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유종호, 앞의 책, pp.230~231.

10) 이용악은 사망하기 얼마 전 화가인 아들에게 “조국통일은 곧 우리 문학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전한다. 황석영, 「조국은 하나이며 문학도 하나! 만해문학상 수상연설」, 『창작과 비평』 봄호, 1990, p.417.

11) 여기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저술한 『조선문학사』의 시대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총 5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1945년 이후의 문학의 시대구분을 ① 평화적건설시기 문학(1945. 8~1950. 6), ②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1950. 6~1953. 7), ③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 시기의 문학(1953. 7~1958. 8)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리동원), 『조선문학사 3』,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김일성종합대학(김려숙, 변귀송, 박용하), 『조선문학사 4』,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1. 북한의 문예정책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1953. 7)와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1953. 7~1958. 8)라는 격동기를 보낸 북한은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모든 문학을 정의로운 조국해방전쟁의 ‘전투적 무기’로 복무시킨다. 이 시기 문예정책은 문학이 “싸우는 조선인민들에게 있어 돌격을 위한 전투구호이며 적의 완전 섬멸을 위한 집중화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였고,¹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학은 전투적 경향성과 호소성이 강한 예리한 무기가 되어 선전·선동의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¹³⁾

전쟁의 현실은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시문학’을 절실히 요구하였고, 소설보다 현실대응력이 빠른 시의 전술적 우위를 확고히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작가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용감한 투사”인 인민군대의 불패성을 테마로 한 작품 창작에 열을 올렸고, 문학은 전쟁 승리에 대한 압도적 감흥과 인민군대의 전투투쟁의 성과와 영웅들의 놀라운 위훈들을 감동적으로 전하면서 “조선 인민의 강력한 투쟁 무기”가 되었다.¹⁴⁾ 김사량(1914~1950)의 「중군기」는 그 한 예라고 할 것이다.¹⁵⁾

작품의 주된 테마는 ‘미국의 야수성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 ‘인민들의 영웅적 노력투쟁’, ‘인민군의 전투성과’,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찬양’, ‘소련군과 중공군에 대한 찬양’ 등이 주류를 이룬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사람들로 문학사에서 전쟁영웅으로 우상화되었다.¹⁶⁾ 결국공들은 원‘영웅들의 가멸찬 투쟁을 선동하는 이념’이 반영사에서 전통해 ‘인민’들의 ‘애국사상 고취’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사상의 힘’으로 복돋우려는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¹⁷⁾

이 시기 이용악은 대표적인 구호시인 「원수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1950. 7)를 비롯해 「핏발

12) 안함광, 「싸우는 조선의 시문학이 제기하는 주요한 몇가지 특징」, 문학예술, 1951. 8.(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2)』, 앞의 책, p.118.)

13) 김일성은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혁명적 시문학의 사명과 기능에 대한 강령지침을 말한바 있다. 리백,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평양: 문예출판사, 1979, p.7.

14) 기석복은 전쟁 발발 이후 약 100여명의 작가들이 전선을 향했다고 적고 있다. 기석복, 「조국해방전쟁과 우리문학」, 인민, 1952.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2)』, 태학사, 1993, pp.223~224.) 이 시기 작품으로 「어려리벌」(민병균), 「그는 이렇게 걸어 갔다」(정문향), 「나의 따벌총」(안룡만), 「간호장」(김조규), 「소베트 장병들에게」(홍순철) 등이 있다.

15) 김사량, 「중군기」, 『김사량 작품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7, pp.243~342. 본명은 김시창으로 1950년 전쟁이 개시되자 서울과 대전 비롯하여 낙동강을 건너 마산 최전선까지 전투에 참여하면서 중군일기와 중군실기를 썼다. 1987년 문예출판사에서 『김사량 작품집』을 출판하였다.

16) “영웅이라 해서 반드시 신기한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작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또는 그들의 자제들”을 가리킨다. 영웅 형상화는 이들의 ‘비범한 위훈’과 ‘영웅적 행동’을 구체적인 인간과 사실을 통해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조, 「영웅 형상화의 문제에 대하여」, 인민, 1952. 2.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2)』, 앞의 책, p.177.)

17) 이 글에서는 북한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기로 한다.

선 새해」(1951. 1. 1), 「평양으로 평양으로」(1951), 「모니카 펠론 녀사에게」(1951. 7), 「싸우는 농촌에서」(1951), 「막내는 항공병」(1951. 10), 「다만 이것을 전하라」(1951. 11) 등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들 시편에는 김일성 찬양, 미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적대감, 대중적인 전쟁영웅 예찬 등 북한 문예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과 원칙이 두루 나타난다.

조국해방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과 함께 종결된다. 북한은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1953. 7~1958. 8)로 접어들면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1953. 8. 5)¹⁸⁾는 “모든 것을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으로!”라는 구호아래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¹⁹⁾ 그 일환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건설인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사유화’를 금지하였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라는 명목으로 ‘농업협동화’가 강력히 추진되었다.²⁰⁾

전국작가예술가대회(1953. 9)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조국의 완전통일의 기반인 인민경제복구발전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자신의 창조적 재능과 정력을 바칠 것과 현실의 거대한 전변 속에 직접 들어가 생활을 체득하고 인민들을 교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²¹⁾ 이에 작가들은 전후복구의 투쟁 속에서 배출되는 노동혁신자들을 주인공으로 선정,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통하여 대중적 노동영웅으로 가공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고난과 싸우는 ‘근로인민의 전형적 인물’을 창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문학은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재무장된 전형적 인물을 내세워 인민들을 투쟁으로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교양 무기’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사상교양자적 역할’을 담당케 했으며, 역사적으로 제기되는 특수한 과업들을 수행하였다.²²⁾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문학은 전쟁 승리를 위한 구호 대신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애쓰는 사회주의 건설자의 형상을 다각적으로 담아내었고, 농촌 및 어촌 등에서 다양한 주제를 찾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용악은 북한문학사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대자연 개조에 참여하여 느끼는 인민들의 기쁨과 보람, 그들의 낙관적 일상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그의 시편에는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보였던

18) 이 회의에서 제기한 과업을 살펴보면, 첫째, 파괴된 인민 경제 복구발전을 위한 준비 및 정리 사업의 조속한 완수. 둘째, 인민 경제 3개년 계획 수립. 셋째, 공업화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등이다. 언어 문학 연구소 문학 연구실, 『조선 문학 통사(하)』, 평양: 과학원 출판사, 1959, p.270.

19)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바탕으로 조선인민의 임무를 인민 민주주의 제도 강화, 애국적 인민의 역량 집결, 정치·경제·문화·군사적 토대강화, 조국발전과 평화적통일의 물질적 담보가 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의 완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안함광, 『조선문학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548.

20) 이 시기 농촌에서 대규모 관개 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이 변화하는 농촌은 생동감 있는 다양한 시적 소재를 제공하였다. 특히 ‘농업협동화’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로 당시 시인들에게 영감을 자극하는 중요한 원천이었다.

21) 안함광, 『조선문학사』, 앞의 책, pp.550~551.

22) 이는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에 잘 나타난다. “문학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주제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문예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부르조아적 및 종파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청산하고 작가 대렬의 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박종원·류만, 앞의 책, 1986, p.177.

과도한 전투적 구호는 사라지고, 사회주의기초국가건설의 완성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설 노동자와 농민의 생동감 있는 삶과 노동을 통해 맺어지는 청춘남녀의 애뜻한 사랑을 시에 담아내었다. 이용악은 『리용악 시선집』 첫부분의 「어선 민청호」에 실린 11편과 「평남관개시초」에 10편의 시를 남긴다.

2. 현실 반영을 위한 예술적 장르 모색

이용악 시의 탁월함은 윤영천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자기 삶에 굳건히 토대한 ‘이야기 시’를 지향할 때 잘 드러난다.²³⁾ 단순 소박한 기존의 서정시와 서사지향의 ‘이야기 시’를 적절히 통합하는 시적 능력을 보인 이용악은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적 세부와 당시 민중들의 삶을 비교적 선명한 서사적 골격을 지닌 ‘이야기시’를 통해 그의 시에 정당하게 형상하였다.²⁴⁾ 아마도 기존의 서정시로는 급변해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양식적 자각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시적 형상은 월북 후에도 이어진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까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격동적인 변화를 겪는다. 해방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이러한 격동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반영하고 당이 내세우는 이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인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술적 형식들이 활발히 모색된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장르들은 각각의 시대가 제기하는 과업에 맞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북한 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으로 새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한편, 인민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시문학은 급속하게 발전한다. 이는 당대의 “벽찬 현실은 벽찬 언어를 요구하며 또 그 벽찬 언어는 그가 아무런 약속도 없이 담기어질 수 있는 형식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창조적 건설에 참여한 혁명적 노동자들의 투쟁적 모습을 비롯해 그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하여 이를 다양한 시적형식으로 형상화한 작가들의 창작적 열정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²⁵⁾ 그 중 서사시는 경험과 정서적 공감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회·정치적인 사건과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면서 시문학사에 남다른 위상을 차지하였다.

북한문학사에 크게 기여한 서사시²⁶⁾는 앞서 제시한 격동의 시기에 당의 문예정책과 급변하는 사

23)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 - 이용악론」, 앞의 책, p.98.

24) 「북쪽」, 「달있는 제사」 일제강점기의 「남은 집」,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오랑캐 꽃」, 「전라도 가시내」 그리고 해방기의 「그리움」 등은 한결같이 ‘서사(이야기)적 요소’ 또는 강한 ‘이야기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5) 한효, 「새로운 시문학의 발전」, 『문학의 전진』, 1950.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현대문학비평자료집(2)』, 앞의 책, p.52.)

26) 북한에서의 서사시란 일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주제를 영웅적이며 숭고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구현하며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시”로 규정되어 왔다. 『창작의 빛』, 평양: 사로출판사, 1973, p.162.

회상항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장편서사시’, ‘단편서사시’, 서정시의 연작 형태로 이루어진 ‘서정서사시’, ‘이야기시’, ‘담시’ 등과 같은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변모하는 시대를 담아내는 틀을 제공하였다.²⁷⁾ 이러한 양상의 발현은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현실에 대한 문학적 반영으로 이중 특징적인 것은 ‘서정서사시’의 출현이다.²⁸⁾

서정서사시의 용어는 소련의 시문학을 섭취한 조기천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척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바, 이에 대해 안함광은 “그것은 서사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 즉 두 개 표현방식의 결합의 상태 및 비중의 특성에서 온 것”으로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두 개 표현방식의 결합을 동등한 비중으로 설정하였다는 창조적 특성과 결부 된다”고 보았다.²⁹⁾ 또한 박종식은 “서정적 방식과 서사적 방식은 호상 서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이 두 방식이 결합하여 취한 중간적 형태를 서정서사적 장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서정서사시에서 그 뚜렷한 표현을 보고 있다”³⁰⁾고 보았다. 한마디로 북한의 서정서사시는 서정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가 ‘균형적 통합’과 ‘유기적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장르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용악의 ‘평남관개시초’에 접근하고자 할 때 북한문학사에서 ‘서정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를 결들인 장르로서 ‘서정서사시’의 개념이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되어 이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사회주의 협동화와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는 농촌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³¹⁾ 이용악은 소박한 언어로 역사적 전변을 가져온 발전된 농촌의 현실과 역사적 숙망인 농촌수리화³²⁾를 이루어낸 힘의

그러나 문예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서사적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문학의 한 형태로 시 문장론으로 볼 때 서사시는 운문적 형식을 취하거나 사건과 인간관계가 주어지고 이야기줄거리를 가지며 시인의 서정과 우정투로가 결합되어 있는 용적이 큰 시”로 재규정 하고 있다. 장용남, 『서정과 시창작』,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280.

27) 송기환, 『북한의 시』, 『북한 문학의 이해』, 형성출판사, 2001, pp.81~109.

28)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서정서사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서정서사시란 서사적 묘사와 서정적 토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시의 한 형태. 서사시가 서사적 방식에 서정적 방식이 결합 되어 이루어진 형태라면 서정서사시는 서정적 방식에 서사적 방식이 결합 되어 이루어진 형태다. 서정서사시는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호상관계, 사건, 사실 등을 묘사한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서사시에 비하여 서사적 성격이 약하며 그 대신 서정성이 보다 강하다. 서정서사시는 그 형태적 특성으로 하여 생활반영의 규모와 용적이 서사시에 비하여 작다.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중)』,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243.

29) 안함광, 『조선문학사』, 앞의 책, pp.453~454.

30) 박종식, 『문학개론』, 평양: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60, pp.400~401.

31) 사회주의 농촌의 대자연 개조를 노래한 작품으로는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네」(1954, 박산운), 「등불」(1954, 정서춘), 「그는 이렇게 회답을 쓴다」(1954, 김복원), 「노을」(1954, 류종대), 「열두삼천리벌의 새 노래」(1955, 김복원), 「운전벌에서」(1955, 김복원), 「평남관개시초」(1956, 리용악), 「종다리」(1957, 박아지), 「기양관개시초」(1958, 김상오) 등이 있다.

전후 북한 농촌을 다룬 시편들은 전쟁시기의 험난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회와 농업협동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생산관계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도가 확립되는데 따르는 여러 삶의 변화 그리고 대규모 관개공사를 통하여 농촌의 생산력을 높이는 자연개조 공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노래하였다.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p.176.

3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1954. 11)는 농촌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농촌 경리의 높은 발전을 강조했으며, 특히 긴급한 영세 농민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농촌경리 발전을 기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원천인 위대한 수령과 당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된 수혜자인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을 사실적 전달과 서정적 감정을 넣어 ‘시초’라는 형식에 담아 낭만적인 시풍으로 노래했다.³³⁾ ‘위대한 역사적 전변을 가져온 농업협동화’와 ‘거창한 사회주의 농촌의 벽찬 현실을 시적으로 일반화’한 「평남관개시초」가 이에 해당된다.³⁴⁾ 이 시초는 주제사상을 다양하게 잡는데서, 농촌현실에 따르는 서정의 소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데서, 농촌서정에 따르는 시적인 언어기교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생동한 시적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³⁵⁾

IV. 체제 협력의 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을 계도하고 단결을 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완벽한 영웅의 탄생을 꿈꾸는 것 또한 당연하리라 본다. 북한문학은 이러한 영웅의 형상을 창조하고, 감응의 관계로 결합한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형상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민의 모습을 그리는데 앞장섰다. 작가들은 절대적 충성과 의무감에 휩싸인 인간의 형상을 빚어냄으로써 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인민들의 삶과 감정을 사회주의체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도록 조절하고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북한문학은 북한 정치의 결과적 산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 정치를 이끌고 체제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대규모 관개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시인들은 이 사실을 작품에 담아 형상화했다. 이용악은 ‘평남관개사업의 의의’와 ‘물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갈망’을 시로 형상하여 ‘평남관개시초’를 발표한다. 그는 이 시편에서 인민의 숙원사업인 평남관개공사의 대역사를 통해 당

33) 북한에서 여러 시인들에 의해 활용된 시초는 “약동하는 사회주의농촌현실을 시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서 주제를 다양하게 잡고 심화하는 데서, 서정의 소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고 농촌서정에 따르는 시적인 언어표현성을 높이는 데서, 다양하고 풍만하고 생동한 시적형상을 창조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와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2』, 앞의 책, 1986, p.191.

시인이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시초로는 김순석 「황금의 땅」, 홍종린 「조선민족은 하나이다」, 조벽암 「삼각산이 보인다」, 이호일 「평양 시초」, 김상오 「기양 관개 시초」, 조학래 「월남 시초」 등이 있다.

34) 「평남관개시초」는 『조선 문학』(1956. 8)에 발표한 작품으로 농민들의 세기적 숙원인 물의 문제를 해결한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당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향토성 짙은 정서와 열정으로 노래한 10편의 서정시사시가 들어 있다. 매 작품들은 서정적 독자성을 지니면서 수리화를 수행한 힘의 원천과 이에 대한 농민들의 낭만적 예찬의 감정이 전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조선 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 문학 예술상(1956) 시부문 일등상을 수상하였다. 「평남관개시초」는 당의 수리화 정책을 통해 자연개조의 위대한 전변을 낭만적이고 서정적 목소리로 노래한 서정시초로서 평남관개공사와 관련되어, ①수령에 대한 감사, ②사회주의 건설자에 대한 찬가, ③청년들의 아름다운 사랑, ④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를 통일적인 구성 속에서 내적조화를 이루고 있다. 윤종송 외 편 『문예상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p.243~244.

3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326.

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건설노동자의 혁명적 투쟁에 대한 위훈을 전하고 ‘반외세 의식’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이 실천하고자 한 문학적 이념과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용악이 시의 형상화과정을 통해 어떻게 ‘체제 협력의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수령과 당에 대한 송가

사회주의의 위력은 거대한 자연개조로 확인된다. 세기적 숙망인 물의 문제를 해결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 아래 세기적 전변의 새역사를 펼친 평남관개를 두고 끝없는 감사와 당의 수리화정책의 정당성을 이용악은 낭만적 어조로 예찬했다.³⁶⁾ 「평남관개시초」는 “거대한 자연개조사업에 바쳐진 하나의 아름다운 송가”로서 이 시초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사상은 「위대한 사상」과 「격류하라 사회주의어로」에 형상화되어 나타난다.³⁷⁾ 이 시의 머릿시에 해당하는 「위대한 사랑」을 살펴보자.³⁸⁾

변하고 또 변하자/아름다운 강산이여//전진하는 청춘의 나라/영광스런 조국의 나날과 더불어/
한층 더 아름답기 위해선/강산이여 변하자//천추를 꿰뚫어 광명을 내다보는/지혜와 새로움의 상
상봉/불패의 당이/다함없는 사랑으로 안아 너를 개조하고/보다 밝은 래일로 깃발을 앞세웠거
니//강하는 자기의 청신한 젖물로써/태양은 자기의 불타는 정열로써/대지는 자기의 깊은 자애로
/오곡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라 (「위대한 사랑」 전문)

이 시에는 “다함없는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한 “불패의 당”만이 진정 인민을 위한 아름다운 자연개조를 완성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진정 아름다운 조국이란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인민을 “밝은 래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강과 태양과 대지가 함께 어우러져 오곡이 무럭무럭 자라는 “청춘의 나라”일 것이다. 반복과 청유형 어조로 청자인 강산을 향해 끊임없는 개조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불패의 당”과 “영광스러운 조국”의 “보다 밝은 래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다.

인용시에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관념적 표현인 ‘영광’, ‘깃발’ 등의 시어가 눈에 띈다. 이러한 당위성의 강조는 당에 대한 다함없는 영원한 충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시인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으로 탈바꿈 되는 농촌현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긍지를 기본사상으로 대자연 개조와 같은 거대한 전변을 이끄는 ‘수령과 당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주관적 정서로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사상은 땀을 흘린 「격류한

36) 류만, 앞의 책, p.249.

3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323.

38) 『리용악 시선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앞으로 「평남관개시초」의 시는 이 책을 인용할 것이며, 별도 출처는 밝히지 않는다.

다 사회주의에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강하는 노호한다/강도의 무리가 더러운 발로 머물러/락탈로 저물고 기아로 어둡는/남쪽 땅
사랑하는 강토의 반신에도/불게 탈 새벽 노을을 부르며//격류한다 승리의 물줄기는/우리의 투지
우리의 정열을 타고/사회주의에도!/사회주의에도! (「격류한다 사회주의에도」 부분)

시인은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다양한 수사기교를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남관개공사라는 자연개조 사업의 결과 “우리 조국의 지도 우에” 새롭게 생긴 “호수”와 “강들이” 조국에게 안겨줄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 화자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역사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아득히 먼 세월 그 앞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꿈은 “도도한 물결/행복의 강하”로 시화된다.

농촌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기적 전변을 바탕으로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해 “인민들 편”에서 “불게 탈 새벽 노을”과 “승리의 물줄기”가 이제는 북한을 넘어 “강도의 무리가 더러운 발로” 짓밟고, 기아로 어두운 “남쪽 땅, 사랑하는 강토의 반신”에서도 활활 타오르며 도도히 흐를 것을 화자는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다. 격류하는 물줄기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높이 새겨 사회주의에도 전진 또 전진하는 인민의 투지이자 정열이라고 화자는 소리 높여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현실의 어려움과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찬란한 사회주의 미래와 희망찬 승리에 대해서만 선동적 억양으로 외치고 있다.

인민의 행복 위한 인민의 정권만이/침착한 산 넘어 광활한 벌로/크나큰 강줄기를 단숨에 옮겼더라//그리고 여기 드나드는 조수에 오랜 세월 씻기여/자취조차 없어지는 탐욕의 독을 불려/열두 부자동이라 비웃던 바로 그 자리에/이 고장 청년들이 쌓아 올린 길고 긴 동독 (「열두 부자 동독」 부분)

위의 시는 옛적부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욕심쟁이 열두 부자” 전설과 결합시켜 평남관개 수리화의 의의와 당의 정책에 충실이 따르는 충직한 사회주의건설노동자들의 위훈을 노래하고 있다. “수십년 허덕이고도 물만은 끌지 못한 채” “패망한 놈들의 꼴상판”을 보고 싶다는 화자의 외침은 “침착한 산 넘어 광활한 벌로/크나큰 강줄기를 단숨에 옮겼더라”와 대비를 이루며 “인민의 정권”인 오직 수령의 현명한 영도와 사회주의적 노력에 의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시적 주인공의 제반 유형

「평남관개시초」에는 건설노동자, 청년 돌격대, 농민, 칠보 영감 등과 같은 시적 주인공들이 등장

한다. 서사시에서 서사적 인물은 구체적인 현실과 사건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적합한 유형화된 신분³⁹⁾의 서사적 주인공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서사시에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서사적 인물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⁴⁰⁾ 따라 그 인물의 행동이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의 유형과 전개를 통해 이 시초에 나오는 각 인물의 특징을 살펴보자.

(1) 건설노동자

이 시에 등장하는 ‘건설노동자’는 평남관개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자로 그려지고 있다. 실질적인 면에서 이 시의 주동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간고한 분초를 밤 없이 이어/거대한 자연의 항거를 정복한 우리/암벽을 깨내며 굴 속에 뿌린
땀이/씻기고 씻기여 강물에 풀려/격류하는 흐름 소리 …… //저것은 바로, 천년을 메말랐던/광
활한 벌이 몸부림치는 소리/새날을 호흡하며 전변하는 소리다 (「홀려 들라 십리굴에」 부분)

대동강 물이 대리석 낭하를 통해 연풍저수지로 향하는 물길의 여정이 그려진다. 시인은 “거대한 자연의 항거를 정복”하는 역사적 위업에 참여한 건설노동자의 확신과 긍지를 감격에 찬 어조로 전하고 있다. 화자는 육중한 “무쇠 수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 충격적인 감정에 휩싸인 채로 “새날을 호흡하며 전변”하는 격류하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소리는 “천년을 메말랐던/광활한 벌이” 숨쉬는 소리이며 빈궁과 가뭄을 털어버리고 관개수가 흘러넘치는 새날을 위해 분초를 아끼며 암벽을 깨내며 굴속에 땀을 뿌린 건설노동자들의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의 소리인 것이다.

이 시의 바탕에는 궁극적으로 ‘새날’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의 발전을 이룩한 자부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은 생활의 현상에 깊이 파고들어 힘겨운 노동 끝에 소용돌이치며 물이 흐르는 대리석 낭하로 승화시킨 건설노동자인 화자의 체험과 예지가 물속에 빛나고 있다. 화자는 새날을 꿈꾸는 위대한 대중적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호소와 권유의 어조로 선동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유구한 세월을 외면하고 따로 섰다가/우리의 날에 와서 굳건히도 손잡은/초마산과 수리개 비
탈이/뛰는 맥박으로 서로 반기는 건/회오리 설한풍 속에서도 오히려 가슴 더웁게/우리의 힘이
흔들고 흔들어 깨워준 보람// (…… 중략 ……) 마시자 한번만 더 마셔 보자/산보다도 들판한
콩크리트 언제를/다져 올린 두 손으로 움켜 마시니 …… //대대손손 가물에 탄 목을 적신듯/수
수한 농민들의 웃음 핀 얼굴이/어른어른 물에 비쳐/숫하게 숫하게 정답게도 다가 온다 (「연풍
저수지」 부분)

39) 빨치산 투사, 인민군대의 전사, 농민,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40) 화자는 한 개인을 전형적 인물로서 영웅화하여 제시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을 영웅화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이 시는 대동강물이 연풍 저수지에 가득 흘러든 감격을 노래한다. “초마산과 수리개 비탈이” 마주하기 전 이곳은 “회오리 설한풍”이 휘몰아치고 “대대손손 가물”에 까맣게 탔을 농민들의 아픔과 시름만이 가득했던 곳으로 “태고부터 그늘졌던 골짜골짜”이었다. 연풍 저수지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 속에 무한한 기쁨과 웃음꽃이 가득하다. 이러한 기쁨은 “마시자 한번만 마셔 보자”며 “다져 올린 두 손으로 움켜 마시”는 농민의 힘찬 행위에 묻어난다. 농민에게 있어 물은 운명과 같은 생명의 원천이며, 부강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인 사회주의 전취물인 것이다.

화자는 “우리는 당의 아들 사회주의 건설자”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러한 단호함은 세기적 갈망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당의 이름아래 모여든 어제의 경쟁자이며 친구인 사회주의건설자들은 “스물이라 서른이라/아흔 아홉 굽이”에 가득 차고 넘치는 대동강 물빛을 보며 보람과 긍지의 내면적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건설노동자들은 거대한 자연의 항거를 극복하고 개조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묘사되고 있다. 연풍 저수지는 “우리의 힘이 흔들고 흔들어 깨워준 보람”이며 ‘우리 시대의 자랑’의 산물로 묘사되고 있다.

(2) 청년 돌격대

이 시에 나오는 ‘청년 돌격대’는 사회주의시대를 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젊은 노동자세대를 대변하고 있다.

무엇에 비기랴 어려운 고비마다/앞장에 나섰던 청년 돌격대/두 젊은이의 가슴에 오래 사무쳐
/다는 말 못한 아름다운 사연을//처녀와 총각은 가지런히 앉아/흐르는 물에 발목을 담그고 그
리고 듣는다/바람을 물고 가는 거센 흐름이/자꾸만 귀뜸하는 소리/『말해야지, 오늘 같은 날에야
/어서어서 말을 해야지』(「두 강물을 한 굽으로」 부분)

연풍저수지를 떠난 대동강 물과 금성양수장에서 보낸 청천강 물이 제2간선에서 합류하는 장엄한 광경을 섬세한 감정과 회화적 수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두 강물이 하나로 모임 “대하를 이루는 위대한 순간” 노동자, 농민, 처녀, 총각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며 감격에 젖는다. 더위와 눈보라 같은 자연의 항거도 사나운 자연을 쓸모 있게 개조하려는 젊은 사회주의건설노동자들의 열의를 꺾지 못한다. 물을 따라 환호하는 사람들 저만치 “활짝 핀 배추꽃 이랑” 사이로 바빠 숨어 버리는 어린 닭무리가 정겹다.

이런 감격의 날을 맞아 “흐르는 물에 발목을 담그고” 사랑 고백을 되뇌이던 처녀 총각은 “가슴에 오래 사무쳐/다는 말 못한 아름다운 사연”을 말하겠다고 다짐한다. 두 강물이 한 굽으로 흐르는 장엄한 광경은 처녀 총각의 사랑의 합일과 맞물려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어려운 고비마다/앞장에 나섰던” 건설동지이며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 ‘청년 돌격대’로 표현되는 젊은 노동자들은 노동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건강한 삶을 형성해 가는 건전한 사회주의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

고 있다.

(3) 농 민

이 시에 나타나는 ‘농민’은 지금까지 건설노동자가 이룩해 놓은 평남관개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로 부각되고 있다.

떠가는 구름장을 애타게 쳐다보며/균열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하늘이 무심타고 통곡하는
소리가/허허벌판을 덮어도 눈물만으론/시드는 벼포기를 일으킬 수 없었던다// (…… 중략 ……)
물이어 굳었던 땅을 푹푹 축이며/네가 흘러 가는 별판 한 귀에/너무나 작은 나의 입술을 맞추
면서/쏟아지는 눈물을 막으려도 하지 않음은/정녕코 정녕 내 나라가 좋고 고마워 (「전설 속의
이야기」 부분)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풍족한 물을 이끌어준 나라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화자는 “로쇠한 대지에 영원한 젊음을” 안겨주며 “땅을 푹푹 축이며” “흘러가는 별판 한 귀에” 감격의 입을 맞추고 있다. “이삭이 패일 날은 하늘이 좌우하던” 전설의 그날을 잊을 수없기에 “발을 돌우”며 “아득히 뻗어 나간 너의 길”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이 땅은 숨이 차오르도록 고단한 노동을 해도 “떠가는 구름장을 애타게 쳐다보며/균열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애태우던 절망의 땅이었다. 이제 기적의 땅으로 변한 별판 한 귀에 입술을 맞추며 감사를 전하고 있다. 농민은 너무나 “좋고 고마워” 크나큰 행복을 마련해준 조국에게 더 많은 쌀을 생산함으로써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평남관개사업’은 그 자체가 자연과 대적하여 싸우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인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덕치 마을에서(一)」에서도 잘 나타난다.

어질고 근면한 이 사람들 앞에/약속된 풍년을 무엇이 막으랴/쌀은 사회주의라고 굶직하게 써
불인/붉은 글자들에 모든 시선이 즐겁게 쏠리고//허연 구레나루를 쓰다듬다가/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던 칠보령감/「산 없는 별판에 쌀산이 생기겠군」 (「덕치 마을에서(一)」 부분)

서해의 막다른 농촌 ‘덕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디오’를 통해 물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농민들의 감격과 기대감을 재치있게 묘사하고 있다. 『연풍에서 물이 떠났다구 분명히 그랬지?』 『그러므요, 떠났구 말구요』 믿기 어려운지 되묻고 확인하는 칠보령감과 위원장의 대화가 정겹다. 시인은 육십 평생 허리가 굽도록 농사를 지어도 물모라고는 꽃아보지 못한 한 서린 농부가 맞이하는 물에 대한 설렘을 소박한 문체와 섬세한 언어로 특색있게 형상하고 있다. 이제 “새로 푼 논배미”에 철철 물이 넘쳐흐르고, 풍년은 약속처럼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 없는 별판에 쌀산이 생기겠다」

며 무릎을 치며 좋아하는 칠보 영감의 말속에 풍부한 생명의 물로 이제는 풍년이 들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가득하다.

다음 시는 감격과 즐거움의 대상이 ‘둥글소’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 소는 열두 삼천리에 나서/열두 삼천리에서 자란 둥글소//떡심이야 마을에서 으뜸이건만/
발목에 철철 감기는 물이 글썽/물이 글썽 무거워선가/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네//씨레쫄이야
쌍씨레를 끈다한들/애당초 문제될가만/난생처음 밟고 가는 강물 뉘새가/물뉘새가 유별나게 좋아
선가/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네 (「물뉘새가 좋아선가」 전문)

지난날 농민들이 갈망하던 물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둥글소’에 의탁해 재치있게 시화한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에서 의례적으로 보이는 소영웅들이 부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인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직접적으로 표면화하기 보다는 객관적 상관물인 ‘둥글소’의 걸음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담아 낸 것이 이 시의 매력이다. 그는 생활을 정면으로 노래하지 않고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을 물에 발목이 철철 감겨 뒤통거리는 둥글소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둥글소가 무논에서 뒤통거리는 모습을 보고 “물뉘새가 좋아선가”라고 짐짓 탄성을 부리기도 한다. 마음의 짐을 벗어버린 농민들의 낙천적 능청스러움과 웃음이 가득한 농촌 정취가 물씬 풍긴다. 이렇듯 이용악은 이렇저러한 생활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연에 대한 전변의 의의를 감동있게 전하고 있다. 이같은 감동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잔잔하게 다가오는 것은 시인이 전변을 마음깊이 체험하고 생활로 터득한 결과이며 이를 소박한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했기 때문이다.

(4) 칠보 영감

이 시에서 ‘칠보 영감’은 농민들 가운데서도 특히 구시대를 살아온 나이 든 농민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 밤에 누구보다 기쁜 이는 아마/육십 평생 농사로 허리가 굽었건만
물모라곤 꽃아 못 본 칠보령감님/『연풍에서 물이 떠났다구 분명히 그랬지?』 (「덕치 마을에서(一)」 부분)

희스희스 동트는 새벽 하늘을/이따금씩 바라보며 엽초를 또 말며/몹시나 몹시나 초조한 마음
/『어찌된 셈인가 여태 안 오니//수로가 二천리도 넘는다는 사실을/아마도 령감님은 모르시나바/
물살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하루에야 이 끝까지 어찌 다 올라 (「덕치 마을에서(二)」 부분)

물을 보기 위해 달려 나온 칠보 영감의 기쁨과 초조한 설렘의 정경을 간명하게 형상하고 있다. 「덕치 마을에서(一)」에서 허리가 굽도록 육십평생 일했지만 물모라곤 꽃아 본 일이 없는 칠보영감에게

물소식은 밤새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꿈같은 일인 것이다. 칠보 영감은 물이 철철 흐르는 논배미를 베풀어 준 “나라와 노동자 동무들 은혜를 갚”기 위해 “쌀은 사회주의라고 굶직하게 써 붙인/ 붉은 글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

「덕치 마을에서(二)」에서는 “별이 쨍쨍하면 오히려 마음 흐리던” 지난 세월과 “석달 열흘 가물어도 근심 걱정 없어질” 오는 세월을 대비하여 ‘생광스런 물’을 기다리는 칠보 영감의 감회를 형상화하고 있다. 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칠보 영감은 초조함과 설렘으로 애꿎은 담배만 밤새 태우다 달빛과 흙냄새에 취해 그만 말뚝잠이 든다. 그의 머리위에 내려앉은 달빛이 곱기만 하다. “꺾전을 스치는 거센 흐름 소리에” 영감님은 잠을 깬다. 그러나 잠을 깨운 것은 ‘서해의 파도소리’였다. 동트는 새벽하늘만 바라보는 영감님의 마음은 몹시 초조하다. 연이어 엽초를 말고 있는 행위에 초조함이 묻어난다. 『어찌된 셈일까 여태 안 오니』라는 영감의 중얼거림이 간절함과 초조함을 반증한다.

물에 대한 기대와 물이 오지 않는 상황을 대비시킴으로써 더욱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긴장감은 “수로가 2천리도 넘는다는 사실”을 넘지시 알려줌으로써 해소된다. 그리고 “물살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하루에야 이 끝까지 어찌 다 올라”라는 표현을 통해 2천리도 넘는 평남관개공사의 거대한 규모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편 전반에는 농민에 대한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건설노동자와 농민들의 항거에 바탕을 둔 서사적 전개 위에, 당과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감사와 기쁨의 정서를 더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낭만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자칫 사변적인 이야기로 흐를 수 있는 거대한 평남관개의 의의를 시인은 생활이 담긴 소박한 언어와 정감어린 어조로 노래해 잔잔한 감동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동은 시인이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몸소 체험하고 생활로 터득하여 이를 노래하였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월북 후 이용악이 주로 활동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 6~1953. 7)와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1953. 7~1958. 8)는 북한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문예정책은 특유의 체제이념노선에 따라 북한문학을 이에 복무하도록 했다. 전쟁의 승리가 최대의 관건이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은 인민군대의 전투투쟁의 성과와 애국적 영웅들의 위훈을 전하기 위해서 ‘투쟁의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가 되어야 했으며 선전·선동의 성격이 강한 문학으로 ‘당과 인민에의 복무’에 앞장섰다.

뒤이은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는 사회주의체제와 제도의 확립이라는 새역사의

완성이 중심과제로 부각되면서 문학은 인민들을 당의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켜 투쟁으로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교양의 무기’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제기된 ‘당성’ ‘인민성’ ‘노동계급성’ 등은 작가와 근로자들을 불굴의 투쟁과 영웅적 위훈에 고무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으며, 혁명과 건설에 있어 승리와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 북한시문학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급변하는 현실사회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문학은 다양한 형식들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 복무했다. 특히 서사시는 구체적인 경험과 정서적 공감을 담아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변모를 거듭하면서 시대를 담아내는 틀을 제공하였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서정서사시’이다. 서정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가 균형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형태로 시화된 이용악의 대표적인 시적성취가 1956년에 발표된 「평남관개시초」이다.

이 시초에서 이용악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조국으로 탈바꿈 되는 농촌현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긍지를 기본사상으로 하여, 거대한 자연개조를 이끈 수령과 당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주관적 정서로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 시의 시적주인공인 건설노동자, 청년 돌격대, 농민, 칠보영감 등은 수령과 당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내는 인물들로서 사회주의개조에 적극 참여하여 현실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며, 사회주의기초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대중적 소영웅들로 묘사하는 등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구성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월북 후 그의 시편에는 남한에서 보여주었던 시 창작 기법인 생활을 반영한 투박한 시어의 사용과 평이한 서술 그리고 반복적 어법이나 운율의 사용, 나아가 서정과 서사의 결합 등은 유지되고 있으나, 곡진한 현실의 반영 속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긴장감과 무수한 내면의 갈등은 안타깝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용악은 농촌현실의 소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사회주의기초 건설의 기념비적인 평남관개의 위훈을 전하고, 당과 체제에 협조하는 인민의 위대한 힘을 통해 조국통일의 완성과 미래의 낙관적 사회주의 완성을 향한 의지와 지향을 다양한 시적 장치와 서정과 서사적 요소가 결합된 서정서사시의 양식에 담아 민족적 정서, 민족적 성격 문제 등을 해결하는 특징을 보이며, 사회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등 계급주의 민족문학의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영민 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김명수, 『문학 이론의 기초』, 평양: 국립출판사, 1956.
 김선려, 리근실, 정명옥, 『조선문학사 1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김일성종합대학(리동원), 『조선문학사(3)』,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 김일성종합대학(김려숙, 변귀송, 박용학), 『조선문학사(4)』,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 김재홍, 『그들만의 문학과 생애-이용악』, 한길사, 2008.
- 노희준, 「해방후 1960년까지 북한문학의 흐름」, 김종희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 류 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 리기주, 『조선문학사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 리 맥,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평양: 문예출판사, 1979.
- 박종식, 『문학개론』, 평양: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60.
-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박태상, 「새로 발견된 북한시집 『당의 기치 높이』의 문학사적 위상」, 『최신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2004.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 안함광, 『조선문학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 언어 문학 연구소 문학 연구실, 『조선 문학 통사(하)』, 평양: 과학원 출판사, 1959.
-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2.
-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이용악론」, 『서정적 진실과 시의 힘』, 창작과비평사, 2002.
-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II』, 고려원, 1990.
- 은종섭, 『근대현대문학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 이용악, 『리용악 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 장용남, 『서정과 시창작』, 평양: 문예출판사, 1990.
- 정미경, 「이용악 문학 연구」, 연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 문학사』, 나남출판, 1995.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Lee Yong-ak's poem of Pyung-Nam irrigation

Bae, Seok-ho*

Lee Yong-ak lived in the era of sudden change of Japanese invasion, independence and the division of Korea. Through he recognized the suffering history and the poor presence of Korean people and he embodied this recognition in poems, he is appreciated as a poet who showed the directions of national literature. After he went to North Korea, he published "the poetry of Lee Yong-ak". This poetry contains "a poem of Pyung-Nam irrigation" which deals with the great work of Pyung-Nam irrigation that was a milestone of the construction of a communism country. Especially, after going to North Korea, Lee Yong-ak intensely took an action in the period of "the wartime of National independence"(1950. 6~1953. 7) and "The recovery construction after the wartim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oundation of communism"(1953. 7~1958. 8) and contributed to the literature policies and ideologies of each period. At that time, poetry contains the status of the sudden change era through a variety of artistic forms. Particularly, epic poetry greatly contributed to containing the presence of the concrete experiences in the era. After that, through changing into long and short epics, lyric epics, story poetry and ballad, epics provided the frame to reflect historic changes and the era's requirements. It seems that Lee Yong-ak sincerely followed literature ideologies and policies which the communist party wanted to put into practice by emphasizing 'the mind against foreign countries' and 'the priority of communism system through 'Pyung-Nam irrigation poem' and went along the way of national literature of social classism

[Key Words] Lee Yong-ak, a poem of Pyung-Nam irrigation, literary policy, epic, lyric epic, public hero

* Teacher, In-myong girl's high school